

# 도서관 벽에서 만난 인류의 잠언(箴言)



글 | 박 현 우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사서  
hwp@snu.ac.kr

세상은 변한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도서관도 함께 변해 왔다. 즉,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업무는 인류의 기술발전과 맥을 같이 하며 함께 변해왔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도서관은 존재하였으나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은 더욱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다. 정보화시대에 접어 든 지금은 디지털 자료 없는 도서관, 인터넷 없는 도서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인체의 모든 부위가 혈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정보와 도서관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아날로그 자료의 비중이 높았던 도서관이 오늘날은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터넷 없이는 도서관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정도로 서비스 형태가 바뀌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의 외부 환경이 바뀌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교에서는 '도서관(圖書館)'이라는 명칭이 이미 여러 곳에서 점점 사라지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정보(情報)'라는 용어가 도입되어 사용되면서 '학술정보관(學術情報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도서(圖書)와 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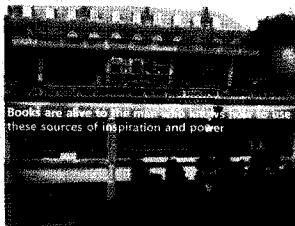
서(非圖書)가 함께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공간이고, 기술발달로 도서관의 서비스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수 천년 동안 도서관 안에서 사람들이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에 굳이 오지 않고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떤 곳이라도 도서 정보를 검색하고 논문을 인쇄할 수 있고, 인터넷이 더 발달하면 도서관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현실에서 “도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도서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의 도서관 연수를 통해서 갖게 되었다.

필자는 2009년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주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내에 있는 모텐슨센터(Mortenson Center)에서 교육을 받았다. 7주간 진행된 교육은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세미나, 최신 정보기술관련 세미나, 도서관 경영관련 세미나, 일리노이주 도서관대회 참여, 도서관 방문, 프리젠테이션 연습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도서관과 인연을 맺으면서 미국도서관협회(ALA), OCLC, 시카고공공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몇몇 도서관 벽에 걸려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짧은 문장을 통해서 도서관이 존재하는 의미, 미국인들의 도서관 철학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일리노이주립대학교 학부도서관에서 만난 잠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학부도서관은 특이하게 지하에 만들어져 있다. 어느 날 지상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도서관 한 벽의 돌에 새겨진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 잉크가 바래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찬찬히 읽어 보니 “Books are alive to the man who knows how to use these sources of inspiration and power.” 였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도서관 벽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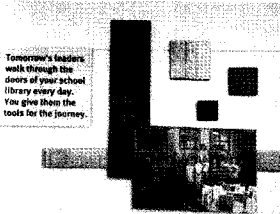


Books are alive to the man who knows how to use these sources of inspiration and power.

영감과 힘의 원천인 책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책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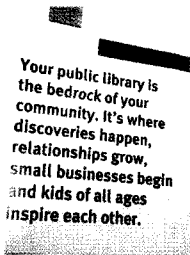
## OCLC에서 만난 잠언

OCLC는 오하이오주 더블린에 있는데 교육을 받았던 일리노이주 샴페인에서 버스로 약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샴페인에서 동트기 전인 캄캄한 새벽 6시에 출발하여 12시가 넘어서 도착하였다. OCLC는 두 개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착하여 식당이 있는 건물로 안내되어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내부를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판넬에 쓰여진 영어문장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난 후에 그 문장의 의미가 들어왔다. 영어 문장의 의미를 알고 나서 감흥을 받아 몇 개의 판넬을 더 찍었는데 판넬에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정신과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판넬의 문장을 통해서 “사서는 도서관 안에서 이용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사람들의 도서관 서비스 정신과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지금 필자가 봉사하는 학생들은 내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며, 도서관은 자기를 발견하고, 타인으로부터 배우며, 기초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감동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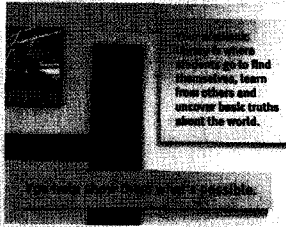
Tomorrow's leaders walk through the doors of your school library every day. You give them the tools for the journey.

내일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매일 지나간다. 여러분은 그들이 여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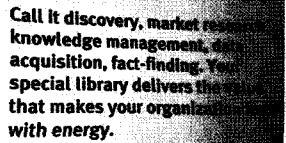
Your public library is the bedrock of your community. It's where discoveries happen, relationships grow, small businesses begin and kids of all ages inspire each other.

공공도서관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다. 이곳은 발견을 하고, 관계성이 깊어지며, 조그마한 사업이 시작되고, 모든 아이들이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는 곳이다.



Your academic library is where students go to find themselves, learn from others and uncover basic truths about the world. You help show them what's possible.

당신이 일하는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Call it discovery, market research, knowledge management, data acquisition, fact-finding. Your special library delivers the value that makes your organization hum with energy.

자료를 발견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지식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실을 알아내게 하라.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은 도서관을 에너지로 넘쳐나게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곳이다.

## 시카고공공도서관에서 만난 잠언

삼페인에서 버스로 두 시간 떨어진 시카고에 그 유명한 시카고공공도서관이 있었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은 1873년에 개관하여 여러 변천과정을 거쳐 1970년에 현재의 스테이트가에 새로 짓기 시작하여 1991년에 개관하였다고 한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은 78개의 작은 분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해롤드워싱턴도서관(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이라고 부른다. 도서관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10층 건물이며 전 세계 공공도서관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곳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장서는 약 900만권 정도라고 하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책과 정부문서, 마이크로필름, 연속간행물, 전문서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테이프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극장과 어린이를 위한 극장, 세미나실, 카페, 기념품가게, 헌 책 파는 가게 등도 있었다.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시카고공공도서관의 미션과 비전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Read, Learn, Discover at Chicago Public Library"라는 문구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도서관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도서관이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든, 아날로그 자료를 제공하든, 악기 연습실을 빌려 주든, 연극을 볼 수 있는 곳이든, 결국 인간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란 읽고, 배우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곳,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곳이 아닌가? 도서관을 설명하는데 이 이상의 말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대부분 도서관 벽에는 안내판과 그림 이외에는 붙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시카고공공도서관

에는 거의 빈 벽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의 짧은 문장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10층까지 올라가면 서 대부분의 층마다 벽에는 인류의 명언이 붙어 있었다. 각 층마다 다양하게 만나는 주제와 다양한 자료, 각각의 주제 분야 마다 배치된 사서, 벽에서 만나는 인류의 명언, 도서관을 찾아 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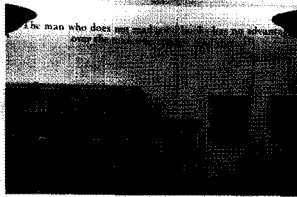
Wisdom begins in wonder.  
Socrates

Wisdom begins in wonder.

- Socrates

지혜는 호기심에서 시작한다.

- 소크라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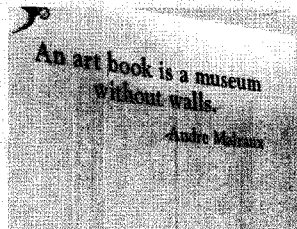


The man who does not read good books has no advantage over the man who cannot read them.

- Mark Twain

좋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좋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

- 마크 트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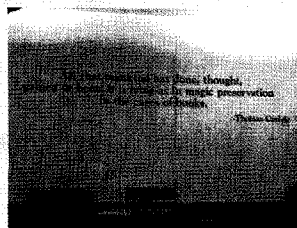


An art book is a museum without walls.

- Andre Malraux

예술책은 벽 없는 박물관이다.

- 앙드레 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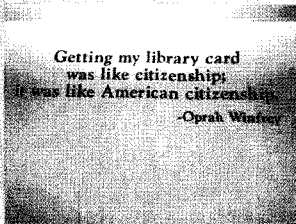


All that mankind has done, thought, gained or been: it is lying as in magic preservation in the pages of books.

- Thomas Carlyle

인류가 이룩한 것, 사고한 것, 얻은 것들은 모두 책의 한 장 한 장에 마법처럼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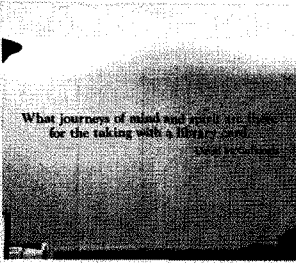
- 토마스 카알라일



Getting my library card was like citizenship; it was like American citizenship.

- Oprah Winfr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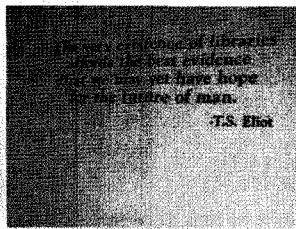
미국에서 도서관카드를 얻은 것은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과 같았다.  
- 오프라 윈프리



What journeys of mind and spirit are there for the taking with a library card.

- David McCull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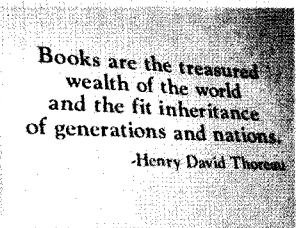
도서관 출입카드를 갖고 있으면 마음과 영혼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 데이비드 맥컬러우



The very existence of libraries affords the best evidence that we may yet have hope for the future of man.

- T.S. Eli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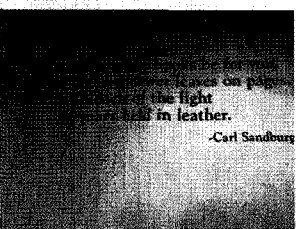
도서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인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이다.  
- T.S. 엘리엇



Books are treasured wealth of the world and the fit inheritance of generations and nations.

- Henry David Tho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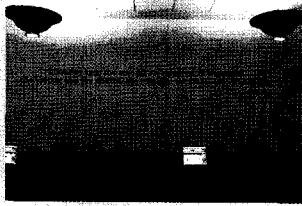
책은 여러 세대와 여러 국가에 상속할 수 있는 세상의 귀중한 유산이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The peace of great books be for you, stains of pressed clover leaves on pages, bleach of the light of years held in leather.

- Carl Sandburg

오랜 세월 책 안에서 빛이 바랜 클로버 잎이 들어 있는 위대한 책의 평화는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  
- 카알 샌드버그



Libraries keep the records on behalf of all humanity, the unique and the absurd, the wise and the fragments of stupidity

- Vartan Gregorian

도서관은 특이한 내용, 터무니 없는 내용, 지혜를 담고 있는 내용, 어리석은 내용까지 인류를 위하여 모든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

- 바탄 그레고리안

## 마치며

일리노이주 샴페인에 7주간 머물면서 일리노이주립대학교 학부도서관, OCLC, 시카고공공도서관의 벽에서 만난 인류의 명언은 필자에게는 도서관 벽에서 만난 인류의 잠언이었다. 도서관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곳인가? 도서관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읽고,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 가는 것이며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읽고,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사람의 내면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곳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도서관 벽에서 만난 인류의 잠언을 통해서 필자는 대학도서관 사서로서 미래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을 위하여 무엇을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도서관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전 세계 도서관과 비교하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는 도서관을 통해서 이러한 이상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전세계의 도서관과 사서와 이상을 공유하면 서로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필자의 동료 사서들도 도서관 벽에 걸린 인류의 잠언을 읽으면서 감흥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도서관 벽에서 만난 인류의 잠언이 잠시만의 감흥이 아니라 평생 사서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되는 여운과 사명이기를 바란다. 